

영사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다른 촬영법 보다 줄일 수 있었다.

## <02>

### 대퇴슬관절의 접선방향 촬영에서 슬관절 굴절각도에 관한 고찰

한림대학교 동산성심병원 방사선과  
양재철

#### 목적

대퇴슬관절의 접선방향 촬영법중 슬관절을 굴곡시키는 각도가 45도 이상의 촬영법 보다 20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방법이 진단정보 제공면에서 우수함을 전산화단층촬영법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슬관절의 통증이 있는 10명과 대조군으로 정상인 10명을 각각 슬관절 45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Merchant view, 20도 굴곡시켜 촬영하는 Laurin view로 접선 촬영과 CT를 이용 0.5, 10~45도, 굴곡시켜 대퇴 슬관절을 촬영하였다.

#### 결과

Merchant view는 슬관절을 45도 굴곡시키는 관계로 CT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경우도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Laurin view는 슬관절을 20도 굴곡시켜 촬영한 것으로서 CT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이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CT촬영의 0~15도까지는 슬개골이 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측정 의미가 작았으며 45도에서는 슬개골이 구로 완전히 들어 감으로서 비정상이 정상치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2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CT촬영이 가장 실측에 가까운 측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 결론

대퇴슬관절의 접선촬영법으로는 슬관절의 굴곡이 최소각도인 20도 촬영하는 Laurin view와 CT를 비교하여 CT가 우수함을 알수 있었으나, 복잡성 피폭, 비용면에서 간단하고 저렴한 일

반촬영인 Laurin view가 CT에 근접하게 정보 제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접선촬영은 Laurin view를 권하고 싶다.

## <03>

### 종합건강진단의 유소견에 관한 연구

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 방사선과  
조정찬 · 류명선 · 김건중

#### 목적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함께 건강 또한 인식과 관심도가 매년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종합건강진단을 실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유지하며 또한 질병의 원인을 조기발견하고 예방과 치료로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종합건강진단의 검사결과 의외로 각종질환의 발병을 증가와 다양한 질병의 발견으로 건강진단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검사자 현황 및 유소견 비율을 연령 및 성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대상 및 방법

아산재단서울중앙병원의 종합검진센터에서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한 43,648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별로 분류하였다. 연령별은 10년 단위로 20대에서 70대까지 분류했으며 질병 분류는 70여 병변으로 세분하여 결과가 나왔으나 본 논문은 남녀 유소견 비율이 높은 위염, 고혈압, 간기능 이상으로만 분류했다.

#### 결과

총 검사자는 43,648명 그중 남자는 27,068명(68%), 여자는 16,580(32%)이며 연령별로 20대(남 946, 여 769), 30대(남 6,821, 여 4,714), 40대(남 11,763, 여 5,312), 50대(남 5,383, 여 4,090), 60대(남 1,688, 여 1,490), 70대(남 467, 여 205)로 나타났고 40대, 30대, 50대 순으로 검사자가 많았으며, 특히 40대는 전체검

사자의 30~40%를 차지했다. 유소견 비율은 전체질병(100%) 중 위염의 평균비율은 15%, 고혈압 9.6%, 간기능이상 4.0%이며 위염의 경우 1991년 19%, 1992년 13%, 1993년 12.5% 매년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성별 유소견 현황은 남자 49.7% 여자 51.3% 남자에 비해 여자가 좀 높았으며, 평균 50.3%의 유소견이 발생되었다. 연령별 유소견 현황은 남자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했으며 특히 60대는 61.2%의 유소견 비율을 보였다.

여자인 경우도 남자와 비슷하였으며 병명별로 보면 위염인 경우 남자 73.6%, 여자 26.4%이며 고혈압은 남자 62%, 여자 38%, 간기능 이상은 남자 76.5% 여자 23.5%로 남자는 여자보다 200~300% 높은 유소견 비율이 나왔다.

## 결론

위와 같은 유소견 비율을 볼때 종합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원인을 조기발견하고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04>

###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촬영실의 환경인자들

서울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권이선 · 이민수 · 안진신 · 정경모 · 박홍진

## 목적

진단방사선과 촬영실의 장치로 인한 중압감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촬영실의 환경인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 대상 및 방법

1. 1994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근골격계촬영환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2. 동일한 크기의 2개의 촬영실을 선정하여 기존촬영실에서 114명에게 설문응답을 시행하고,

3. 변화를 준 촬영실은 1) 조명을 형광등, 백열등, 녹색등, 청색등, 황색등으로 설치하고 2) 촬영 중 들려주는 음악으로 대중가요, 서양 고전음악, 서양대중가요,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었으며 3) 벽면을 숲속의 사진으로 장식하여 설문을 응답하게 하였다.

4. 설문구성은 10문항으로 양쪽 촬영실 각각 시행하였다.

5. 응답자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검출하기 위하여 맥박수를 측정하였다.

## 결과

1. 총 274명의 응답자 결과에서 2개의 촬영실 모두 평상시 병원에 대한 분위기가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는 경우는 27%인데 반하여 어수선하거나 딱딱하다는 반응이 51.8%를 나타냈으며, 본과 촬영실의 분위기는 안정감이 있다고 78.8%의 응답을 하였고, 촬영직전의 심리상태를 묻은 항목에서는 35.5%가 편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였다.

2. 촬영실 내부조명이 너무 밝아 어색하거나 불안한지에 대한 설문응답은 기존촬영실에서 불안하지 않다가 75.4%이고 변화촬영실에서 68.8%의 응답을 보였고, 조명등 색상에 대한 선호도는 형광등이 평균 57.7%이고 백열등이 13.9%이었다.

3. 음악이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도 65%를 보였고 특히, 병원직원의 친절 한 태도가 친근감이 간다고 89.1%가 응답하였다.

## 결론

음악, 조명, 벽면장식 등의 시정각적인 촬영실의 환경변화를 통하여 환자의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음악과 벽면의 장식을 통하여 다소 높은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지만, 조명의 경우 기존의 것을 선호하였고, 검사자의 친절에 대한 관심도가 환자의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촬영실의 인자로서 약 90%의 호응도를 얻었다.